



더도 말고 덜도 말고



21세기형 기업경영전략으로 품질혁신과 고객만족 달성을 위해 전사적으로 시행하는 6시그마(six sigma)가 있습니다. 6시그마 프로젝트 수행 시에는 M(measure; 측정), A(analyze; 분석), I(Improve; 개선), 그리고 C(control; 관리)의 4단계를 거쳐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를 MAIC 사이클이라 칭합니다. 이것은 매우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문제해결방법인데, 각 단계별 활동은 과학시험 때 주로 사용하는 '깎때기 효과'를 통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즉 다양한 외생변수들을 정리해 나가다 보면 깎때기의 맨 아래 훌쭉한 부분으로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ESCO를 둘러싼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깎때기 효과를 생각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드리는 말씀입니다.

ESCO사업의 첫걸음은 무엇보다도 에너지진단입니다. 진단기술이 없거나 진단 방법, 측정도구들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고객인 에너지사용가와 ESCO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게 되고 다음단계인 ESCO사업의 실행으로 이어지지 않게 됩니다. 또한 ESCO사업이 수행되고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약속한 에너지절감효과보다 낮거나 했을 때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큰 것이 사실입니다. 이미 선진국인 미국과 일본 등지에서는 에너지절약시설투자를 할 때 에너지절약성과측정 및 검증(M&V)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몇 가지 분야에 대해서 틀을 정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 전 분야의 표준을 갖추진 못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성과배분제 뿐이던 계약방식에 성과보증제를 도입했다고는 하나

아직도 에너지사용가에서는 이를 꺼리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당연히 ESCO들의 영업활동에도 큰 변화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제공되는 명확한 기준은 존재하는 것일까요? 매년 들쭉날쭉한 ESCO자금의 현황을 고려했을 때 지속가능한 경영의 목표는 매우 유동적입니다. 새로운 기술과 제품을 활용하려 해도 측정 및 검증의 표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어렵고 중소ESCO의 입장에서는 자체투자실적을 늘리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금융권을 활용한 파이낸싱을 하려 해도 실질금리와 금융권의 이해부족이 겹쳐 어렵습니다.

때문에 공단과 협회와 정책당국 간의 긴밀한 협의와 제도개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제 ESCO사업은 성장단계를 지나 성숙의 단계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각 에너지사용가의 에너지원단위 개선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지대한 것으로 입증된 만큼 ESCO자금을 확대하거나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예고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또한 분쟁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전문가그룹에 의뢰, 명확한 틀을 가지는 것도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일 것입니다. 지속적인 인력양성과 사후관리, 교육도 필요합니다. 다양하게 존재하면서 표출되는 의견들을 수렴하면서 정말 필요한 변수들만 고려하다보면 개선에 이를 수 있을 것입니다. ESCO에게 필요한 깎때기를 찾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사)에너지절약전문기업협회
회장 유제인